

투데이 칼럼

코로나에 문 닫은 북한 축구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요즘 대륙별 최종 예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이런 스포츠 축제에 북한은 불참을 선언했다. 도쿄올림픽 불참에 이어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 역시 기권했다.

23세 이하 아시아인접과 여자 아시아인접까지 포조리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에서 축구는 꽤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다. 그러나 북한은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아예 문을 닫아 버렸다.

북한은 1958년 국제축구연맹, FIFA에 가입하면서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60년 잉글랜드 월드컵 본선에 첫 출전한 북한은 뛰어난 기동력과 수비로 돌풍을 일으키며 세계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축구 강호 이탈리아를 1대0으로 꺾고 8강에 오른 것이다. 이후 8강전에서 포르투갈을 만난 북한 국가대표팀은 동양의 펠레로 불리는 박두일의 활약으로 3대0으로 앞서가며 열풍을 이어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포르투갈의 축구 영웅 에우제비우가 22분 동안 4골을 넣으며 5-3의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다. 이후 침묵을 지키던 북한 축구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통해 본선 무대에 다시 한 번 세계 된다.

제일 동포 출신의 정대세와 안영



정복규

객원논설위원 · 통일교육원

학이 북한 대표팀으로 출전했던 남아공 월드컵에서 축구 강국 브라질을 상대로 한 골을 뽑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또 다시 7대0의 참패를 당하고 만다.

하지만 북한은 당시 월드컵 경기를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주민들이 실망하는 모습도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본선 진출은 좌절됐지만 조선중앙TV는 주요 경기를 녹화 중계했다.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등의 지원으로 합법적으로 중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북한 내부의 축구 열기도 더욱 뜨거워졌다.

3년 전 러시아 월드컵 역시 북한은 본선에 오르지 못했지만, 월드컵 개막과 경기 소식을 전했다.

최근엔 유럽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축구 강국들 경기도 녹화 방송할

만큼 북한 내부의 축구 인기는 높은 편이다. 2018년 평양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를 계기로 평양을 방문했던 KBS 제작팀에게 당시 북측 안내원은 해박한 축구 지식을 뽐내기도 했다.

호남두의 열성 팬이라는 안내원은 메시와 네이마르 등 유럽 리그 선수들의 근황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손흥민은 물론, 여자축구 대표선수 지소연을 지메시로 부를 만큼 한국 축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당시 안내원은 북한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해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TV와 신문, 잡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축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농라도 5.1 경기장을 최신식 축구장으로 탈바꿈했고, 축구 영재교육도 강조했다.

평양 국제축구학교는 2013년 문을

열었다. 개교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했던 이 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축구 유망주들을 선발했다.

여자 축구 강국답게 여학생들도 다니는 이 학교는 대부분 여덟 살에 입학해 국제 대회를 목표로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은 2015년과 2017년, 동아시아컵에서 잇따라 우승하며 과파 랭킹 9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은 유럽 등 해외 리그로도 진출하고 있다. 북한 호남두라 불리는 한광성은 2017년, 북한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무대를 밟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한광성은 북한으로 복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한광성을 비롯해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북한 축구선수들을 외화벌이 노동자로 규정한 것이다.

연봉이 22억 원으로 알려진 한광성은 소속팀 알두하일에서 받은 월급 약 1억 8200만원 가운데 생활비 2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북한에 송금한 사실이 유엔 조사로 드러났다.

북한 축구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불참을 선언하며 국제사회와 완전히 빗장을 걸었다. 코로나 19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북한 축구선수들에게 돌아간다.

독자제언

설마 내가 스토킹

스토킹의 어원은 영어로 'Stalk'에서 유래가 되었다 뜻은 먹이를 @아다니는 맹수라는 뜻이 어원인데 현재는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 그의 동거인 · 가족에 대하여 일정하고, 반복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기준에는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원의 벌금에 불과 하였다면 최근 스토킹 처벌법이 신설되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법이 지난

10월2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스토킹의 유형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아다니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휴대전화나 개인 소셜 네트워크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해서 연락하면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이 가능하며 그 누구도 예외가 될수 없다. 온라인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순간 범죄자가 될수 있다.

자치경찰 시행으로 스토킹 범죄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사건을 접수 수사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면 주저없이 가까운 자치경찰(파출소) 또는 11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 기준도 무주경찰서 경우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새 로고 앞 기념촬영하는 페이스북 직원들



28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페이스북 본사 직원들이 회사의 새 로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미래에 대한 가상현실 비전인 '메타버스'(Metaverse) 구축을 반영하기 위해 회사 이름을 메타플랫폼 주식회사(메타)로 바꿨다. '페이스북'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설

어르신을 위한 오늘건강 앱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오늘건강' 앱이 어르신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전주시는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대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대신 '오늘건강' 모바일 앱으로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어르신들은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각자 부여받은 건강 미션을 수행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있다.

'약 복용 시간입니다!' 핸드폰에 이런 알림이 뜨면 어르신은 "깜짝할 뻔했네!"라고 말하며 약을 복용한다. 이 어르신은 고혈압으로 인해 꾸준히 약을 챙겨 먹어야 한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 탓에 제대로 된 건강관리가 필요했다.

이처럼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건강 습관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 기기를 통한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참여 등록을 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등을 검사한 뒤 가정에서도 스스로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세끼 챙겨먹기, 하루 30분 걷기, 제때 약 먹기 등은 미션으로 정한다.

어르신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전문가에게 건강 컨설팅을 받는다. 실시간 건강 정보 확인으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오늘건강' 앱과 연동 가능한 손목 활동량계와 블루투스 체중계, 블루투스를 혈압계와 혈당계, AI 생활 스피커 등을 지급한 뒤 사용법을 알려드린다.

'오늘건강'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 60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건강한 습관을 키워가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

어느 충북 콘서트 논란

'충북 콘서트 논란'으로 기소유에 된 재미교포 신은미씨 사건에 관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신씨는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등 혐의로 기소유에 됐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채 5차례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전곡을 순회하며 통일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북한의 정권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것으로 봤다.

신씨에게는 탈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씨와 함께 콘서트에 참여한 황선진 회장도 찬양·고무 논란에 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에 넘기까지 했다.

그러나 황 전 대표는 지난 7월 무죄를 확정 받았다. 법무부는 신씨의 기소유에 처분 이후 5년간 입국을 제한하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신씨는 결국 강제 출국했다.

신은미씨는 토크콘서트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미 언론 등에서 알려진 것들이고, 자신은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탈북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은 황 전 대표가 콘서트에서 북한의 체제나 사상을 옹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해칠 만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주제사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신은미 씨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북한에 대한 강연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옹호 논란이 나왔다. 약칭 '충북(從北) 콘서트 논란'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현 정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강행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